머리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교(儒敎)하면 가정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사나 효도 등의 미풍양속보다 당파싸움, 입신양명의 출세주의, 가족이기주의, 가부장적 여성차별, 권위와 서열의식 등의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 가운데는 일본의 식민사관의 영향도 있지만, 좀 배웠다는 식자층에서 아무런 반성과 고려 없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병폐를 유교에게 뒤집어씌운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공자(孔子)와 맹자(孟子)는 당시 부조리한 현실에서 크게 등용되지 못하였고, 동아시아 역사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후학들 가운데는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며 부조리와 거리가 멀게 살아 온 것을 직시한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는 온갖 부조리가 어찌 유교의 탓이라고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대이전 유럽에서 일어난 온갖 부조리는 모두 그리스도교 탓이라 할 수 있을까요? 유교의 교양을 제대로 갖추었거나 그리스도교 신앙을 올바르게 간직한 사람이라면, 이런 부조리한 일에 발을 들여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째든 유교가 지배하던 근대 이전 역사에서 온갖 폐단과 부

조리가 생겨난 것은 또한 피할 수 없는 유교의 한계 내지 그 해석과 적용의 미숙함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온갖 부조리를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교가 근대 이후 역사에서 주도적 위치를 상실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유교를 말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각종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모습과 가치관을 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나 가치관을 지녀야 하는지 새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현들이 남긴 전통 속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그 해결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런 배경에서 율곡 이이(李珥) 선생의 이 「만언봉사(萬言封事)」를 통해서 지도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유교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원문 해석에 역자의 해설을 덧붙였는데, 이 또한 정답이라기보다 역자의 견해일 뿐이라는 것도 밝힙니다. 또 주석과 약간의 원문 풀이를 통해 내용 이해의 폭이 넓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을 맡은 출판사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11
이종란